

생태숲 걷고 텐트서 하룻밤... 영암 '기찬자연휴양림' 개장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인 '기찬자연휴양림'이 영암군 미암면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휴양림 시설이 동지를 틔 월출산 아래 미암리 곤미현 일대 전경. <영암군 제공>

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숙박동·야영 테크·산책로·어린이 놀이터 월출산 '기찬 뚝길'·유아숲체험원 연결... 온라인 '숲나들e' 예약

“생태숲에서 누리는 추억 영암으로 오세요.”
숲속 산책로를 걷고 야영장에서 숙박하며 쉴 수 있는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영암에 문을 열었다. 영암군은 지난 미암면 기찬자연휴양림 다목적광장에서 영암 최초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인 '기찬자연휴양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기찬자연휴양림은 지난 2020년 전남도의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에 따라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암면 미암리 곤미현 일대 46ha에 마련됐다.
이 곳에는 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숲속 숙박동 10동, 야영 테크 5개소, 방문자센터, 피크닉장, 주차장, 쉼터 등이 설치됐다.
또 400m에 이르는 '활기찬 숲' 산책로, 숲속 지구 주변 산책로, 진입로변 암석정원, 야간 경관조명, 포토존 등이 갖춰져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기

역에 남는 볼거리와 쉴 거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피크닉 정자도 갖춰져 있어 이용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휴양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구역별로 CC-TV 11대를 설치해 안심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영암군은 천혜의 숲과 지역 축제,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찬 뚝길'과의 연계를 통해 차별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 생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휴양림과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휴양림 예약은 온라인 '숲나들e'에서 할 수 있다. 숲속 숙박동은 월출관(43㎡ 최대인원 7명, 35㎡ 최대인원 5명) 왕인관(43㎡ 최대인원 7명, 35㎡ 최대인원 5명)으로 나뉘며 각각 43㎡형은 비수기 6만원, 성수기와 주말 10만원을 받는다. 35㎡형은 비수기 5만원, 성수기와 주말 7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야영 테크 5개소는 최대인원 4명을 기준으로 비수기 1만원, 성수기와 주말 1만50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최대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예약받는데 사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 상관없이 5만원이며 가능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곳은 맑고 깨끗한 월출산의 숲과 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며 “전 국민이 찾는 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찬자연휴양림이 영암을 대표하는 대국민 '체류형 관광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피크닉 정자



숙박동



암석정원

친환경 건강도로 '기찬뚝길' 힐링이 절로

천황사지 주차장~미암면 두억마을 40km... 기·문화·역사·생태·오감체험 5개 코스

'기(氣)의 고장' 영암에는 월출산의 기(氣)를 느낄 수 있는 천자연적 힐링 산책로 '기찬뚝길'이 있어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기찬뚝길은 월출산 숲속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도록 조성한 기 체험 산책로이자 친환경 건강도로다.
영암군은 2007년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이 길을 조성했다. 물과 바람, 맥반석이 조화를 이룬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월출산의 좋은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보전용으로 만들어 하루 평균 200여명의 군민과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동백·산딸기·산수유·산뽕·목서·단풍 등 계절별 개화 및 결실시기가 다른 수종을 구간별로 심어 사시사철 꽃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테마로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월출산 자락을 따라 천황사지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마을에 이르는 '월출산 100리 돌레길'



이와 '천자연적 기(氣) 웰빙 산책로'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찬뚝길은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지 주차장에서 미암면 두억마을까지 40km에 이르는 거리를 5구간으로 나눈 길이다.
1코스는 천황사지 주차장에서 기찬랜드까지의 6.7km 구간으로 '기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길이다. 2코스는 기찬랜드에서 월암마을까지의 7.9km 구간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길'이며, 3코

스는 월암마을에서 학산 용산마을까지 7.8km 구간으로 왕인박사와 도선국사의 삶을 만나는 '역사 체험의 길'을 조성해 놓았다.
4코스는 학산 용산마을에서 학계마을까지 8.9km의 구간으로 영암의 자연 및 생태를 즐기는 '생태 체험의 길'이고, 마지막 5코스는 학산 학계마을에서 미암 두억마을까지 8.2km 구간으로 산림욕과 영암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오감 체험의 길'이다.
영암군은 기찬뚝길을 찾는 탐방객이 늘자 '내 손내산(내 손으로 가꾸는 내 산)' 가꾸기를 선언하고 생태자연도 보호와 육성에 공을 드리고 있다. 군민과 함께 숲길을 가꾸어가는 방식을 제안하고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숲길 명소로 바꿔 나가자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대적인 숲길 가꾸기로 기찬뚝길을 군민의 길, 대한민국의 숲길 명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